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랑가라 대학교는 시설도 좋고 랑가라 대학교 역에서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위치는 꽤 좋은 편입니다. 다운타운과 리치몬드 중간지점에 있어서 학교 끝나고 다른 곳에 가보기 참 좋은 곳입니다. 다만 저는 집이 조금 먼 편이어서 아침마다 좀 더 피곤했으나,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만큼 만족스러웠던 학교입니다. 학교 안에 팀홀튼, 스타벅스, 서브웨이가 있어서 자주 애용했습니다.
수업	수업은 우선 첫쨋날의 듣기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듣기 평가로만 레벨을 분반한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수업을 들어보니 듣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오로지 제 의견). 수업은 어렵지 않은 편이고 적당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반의 선생님들 모두 유쾌하시고, 영어적인 실수에 대해서 절대 나무라지 않으시고 영어 관련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모든 학생들을 하나하나 봐주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문화적인 차별이 절대 없으시고 각 나라 학생의 새로운 문화를 들으시고 존중하시는 모습들이 좋았어요. 아, 수업 파일이 큰 편이기 때문에 얇은 파일철을 준비해 가서 거기에 옮기는 것이 더 가벼우실거에요. 점심을 홈스테이 집에서 싸주기 때문에 가방이 좀 무거웠어요.
Activity	아쿠아리움, 밴쿠버 박물관, 휘슬러 트립, 카약킹, 밴투버 투어를 하였는데 추가비용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기념품을 살 것이거나, 이 프로그램 후 친구들과 놀러 갈 예정이라면 추가비용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식이나 쇼핑을 좋아한다면 많이 들고 가셔야 해요. 추가 비용은 넉넉하게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첫주만 좀 덥고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우리나라의 초가을 날씨였습니다. 습하지 않아서 불쾌함은 전혀 없었고 반팔과 얇은 긴팔 적당히 가져가셔야 해요. 저는 아울렛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후드집업을 구매하거나 직접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요. 서늘해서 추울 때가 있어요. (특히 비 온 후)
안전	홈리스가 돈을 요구할 때가 있기도 하고 마약을 한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특별히 피해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홈리스가 말을 건다면 무조건 대답도 하지 말고 못 들은 척 지나가세요. 정중하게 거절이나 대답을 해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한국보다 밤문화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밤에는 통금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세요.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O) 외부 숙소( ) 기타( ) 홈스테이와 출국 전에 연락을 취하고 본인이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여쭤보세요. 저는 큰 수건을 빌려주시긴 했지만 여기서 쓰던 수건을 4개 정도 가져가서 썼어요. 드라이기도 제공되는 집이 있고 안되는 집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가세요. 기타 등등 자세히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거에요.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 아침, 점심은 홈스테이 식사로 먹었고 저는 저녁은 매일 밖에서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모두 과일과 빵으로 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속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둘째주부터 라면이 그리워지니 라면은 꼭 챙겨가세요. 시내 H마트에서 판매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1.5~2배 정도.. 한국 음식 많이 좋아하시면 많이 가져가세요.
교통	학교에서 무제한 교통카드를 나누어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6달러를 내고 재 발급 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교통비는 추가로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더욱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 그 때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버스 문화가 많이 다르니, 당황하지 마세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59,500	글로벌 유심 데이터 무제한, 출국 전 구매 후 공항수령
환전	699,590	캐나다 달러 800불
카드 사용	211,489	추가 쇼핑

합계	2,829,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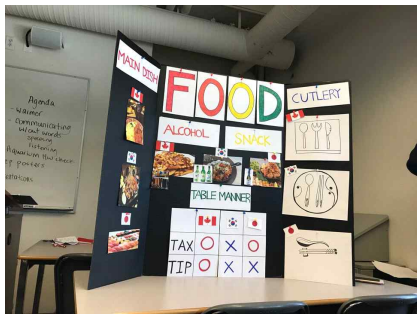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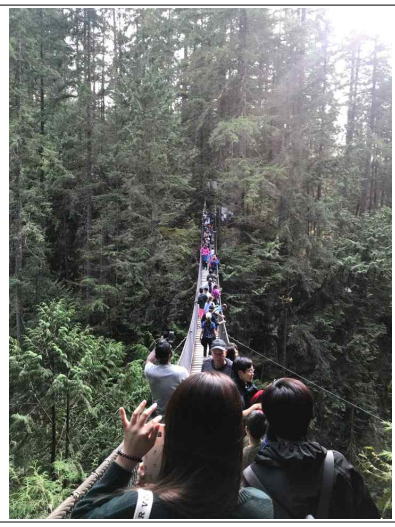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홈스테이 연락 꼭 하시고 좀 더 편하게 생활 수 있도록 상의해보세요.
해외 유심은 5기가와 무제한 두 부류로 보통 구매하는데, 저는 59500원의 가격으로 현지 문자, 전화 무제한 및 데이터 무제한인 글로벌 유심을 구매하였는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좋고 무제한 중 가장 저렴해서 구매했습니다.
현지의 맛집이나 좋은 쇼핑 지역은 지내면서 선생님들이나 홈스테이 가족에게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인의 밴쿠버 포스팅이 다른 여행지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만 알아오고 오셔서 현지인 추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우선 영어를 배운 것도 좋지만, 일본, 대만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정말 3주는 짧지만 금방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사진 많이 남겼음에도 아직도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 국의 말도 친구들을 통해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의 여름 날씨는 매우 좋기 때문에 날씨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가끔 비 온 후(오더라도 많이 안 와요)에는 매우 추워서 추위 잘 타시는 분들은 긴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리치몬드에 위치한 맥아더글랜이라는 아울렛에서 각 종 브랜드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울렛이 가장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조금만 가져가서 아울렛을 첫째 주에 구매 후 입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져온 옷 + 새로 산 옷 + 각 종 기념품 및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캐리어가 모자라서 두 개 가져올 것을 후회했습니다.
밴쿠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친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쾌하게 말을 걸어도 당황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현지 학생이 말을 걸었었는데,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인종차별도 거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휘슬러		클래스메이트와 선생님
		
밴쿠버 아쿠아리움		조별 프레젠테이션
		
빅토리아 아일랜드		린캐년 서스펜션 브릿지